

영화 <헝거게임>을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이해해보기.

영화 <헝거게임> 속의 사회는 캐피탈이라는 지배계급(dominant)의 사회와 12개구역으로 나뉘어 사회필수 생산활동을 담당하는 피지배계급(subordinate)의 사회로 양분되어 있다. 캐피탈에 사는 사람들은 (부르주아와 같은 자본가처럼) 일하지 않아도 버튼만 누르면 음식이 나타나고 매일 치장하고 오락만 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다른 12개 구역사람들은 탄광이나 농업 등 먹고 살기 위해 캐피탈을 위한 '임금노동자'의 운명으로 살아간다.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가 그러하듯, 캐피탈은 영리하다. 캐피탈이 만든 사회질서 속에서, 피지배계급들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도록' 구조적 상황을 만들었다. 캐피탈은 자신들의 특별한 계급적 위치를 보호하기 위해, '헝거게임'이라는 사회시스템(ideological state tools)을 만들었다. (마치 오늘날 <친구들과 경쟁하면서 자라는 아이들>, 자본가와 노동자가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간의 생존경쟁>으로 바뀐 오늘날의 모습처럼 말이다.) 또한

헝거게임은 <각 구역별 남녀 1명씩 특별경기장에 갇혀 한 사람만 살아남을 때까지 서로 죽이는 모습을 온 사회에 방송한다>. 그리고 이를 스포츠 축제처럼 포장한다. 지배계급을 보호하는 논리를 '스포츠'로 순화하여 정치적 무의식(political unconscious)을 형성시킴으로써, 그들의 폭력논리를 은폐하고(감추고),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스포츠' 정도로 사람들이 느끼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그들은 피지배계급끼리 싸우도록 만들으로써, 지배계급의 안전을 확보한다. 특권층이 사는 캐피탈에 사는 사람들은 참여할 필요가 없지만, 모든 구역의 사람들은 생존을 건 죽음의 게임에 참가해야 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헝거게임 참여자를 뽑는 추첨시스템은 더 불공평하다. 가난한 사람은 추첨통에 이름을 더 넣고, 음식을 배급받는다.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생존게임'에 참가하게 될 확률은 더 높아진다. 불공평한 추첨시스템 뿐만이 아니라, 헝거게임에서 살아남은 우승자들을 미화시키고 한다. 우승자투어를 통해 남들 짓밟고 죽여 살아남은 자를 선망하게 만든다. 그렇게 캐피탈의 권력에 구속되어 살고 있음을 상기시키게 한다.

(또한 캐피탈의 대통령 스노우는 '구역들의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게임설계자들과 캐피탈 장관들에게 사회적 압력을 행사한다. 캐피탈의 이데올로기를 선전하기 위해 자주 '캐피탈 전용 방송'을 전 사회에 내보내며,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보호하기 위해 '피타를 세뇌시키고 길들여' 그들 사회를 옹호하는 방송을 전국에 방영한다.)

이렇게 캐피탈이라는 지배계급을 보호하는 이데올로기적 시스템이 이 사회를 보호하고 있다. 캐피탈은 자신들의 특별한 계급적 위치를 이런 식으로 보호한다.

이에 캣니스라는 주인공은 의문을 제기한다. 피지배계급의 출신으로 캐피탈로 대표되는 지배계급에 저항을 하며, 지배이데올로기 속에 감춰진 '거짓과 폭력의 논리'를 비판한다. "대체 이 싸움으로부터 이기는 사람은 누구죠? 구역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데, 언제나 이기는 건 캐피탈이에요. 나는 캐피탈을 위해서 그들의 노예들을 죽이는 짓은 그만할래요."라고 말한다. 그렇게 캣니스는 구역들의 단합을 이끌어내, 캐피탈을 전복시킨다. (마치 마르크스가 유럽의 18-19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노동자들의 고통을 보고, 자본의 인간소외와 폭력성을 다룬 <자본>이라는 책을 썼듯이 말이다)

이처럼 영화 <헝거게임>에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지배하기 위한 그들만의 논리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지배계급을 옹호하는 지배이데올로기의 '선전'과 그 '허구성'을 고발하고, 이에 피지배계급들이 단결하여 지배계급에 저항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사실 영화에 담긴 모습은 완벽하게 오늘의 사회 모습과 닮아있다. 세상에는 불로소득으로 먹고사는 자본가계급과 열심히 일해야만 겨우 먹고사는 임금노동자계급으로 양분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언론'을 통해 그들의 논리를 대변하고, 금권행사를 통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쳐 압력을 행사한다. 그 속에서 생계에만 골몰하여 살아가는 우리 임금노동자들은 '이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와 선전'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도, 각자도생·생존경쟁에 내몰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네 삶은 무엇을 위한 삶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을 하는가. 영화 <헝거게임>은 우리의 삶을, 우리 사회의 모습을 성찰하게 한다.